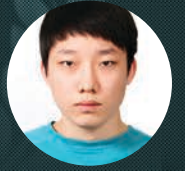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송영훈



안녕하세요. 2015년 한 해 동안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공부해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합격한 송영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저는 사교육이 지배한 지역인 강남에서 자라온 학생이었습니다. 유명강사들이 차린 학원에 다니며, 학원을 다니는 것이 곧 공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끝나면 PC방으로 달려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학교에서의 생활 또한 엉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는 것이 일상이었고, 학교가 끝나면 PC방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게다가 소위 대치동 엄마들의 입김으로, 저희 고등학교에는 야간자율학습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공부했지만 그 시간에 저는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을 지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게임 플레이 시간 포함 5500시간이라는 걸출한 기록과 믿고 싶지 않은 경이로운 수능 성적, 그리고 내신 4.3등급.

제게는 미래가 없었고 밑바닥 인생으로의 고속도로에 탑승한 꼴이었습니다.

평소 생각이 “어떻게든 되겠다”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끝도 없는 자괴감과 무력감이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부끄러웠고, 명절에 만날 친척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수험표 지참 이벤트에는 차마 수험표를 보여주기 부끄러워 참여하지도 못했고, 몇 달간 집에만 박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는 문득 제가 얼마나 허탈하게 살아왔는지, 나태하게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한번 바꿔보기로 마음먹고, ‘철저한 학습관리와 엄격한 생활관리’를 지향한다는? ‘노량진 종로학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가 노량진 종로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철저한 학습관리와 진학지도였습니다. 게임만 하며 살아오던 저는 분명 언젠가 나태해지고 공부를 놓게 될 거로 생각했고 그걸 최대한 막아줄 학원을 원했습니다.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원은 노량진 종로학원뿐이었습니다. 타 학원들과 달리, 노량진 종로학원은 주말 의무자습을 시행한다는 점, 자습을 관리해주실 선생님들과 10시까지 질문을 받아주시실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점, 마지막으로 철저한 생활관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격한 관리는 따르기 매우 힘들었지만, “나의 인생을 바꿀 기회는 이것뿐이다”라고 믿으며 그 관리에 따랐습니다.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국수영탐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는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고, 격일로 시행되는 영단어 테스트는 어휘력을 많이 늘려주었습니다. 또한 클리닉 강의 시스템을 통해 부족했던 개념과 문제풀이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꼼꼼하고 세심한 지도는 재수생활의 원동력이 되었고, 주말까지 시행되는 의무자습은 부족한 공부량을 늘리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지도와 관리를 통해 저는 나쁜 습관을 탈피해 새로운 공부습관을 확립하여,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공부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월부터 시작된 논술수업, 8월부터 시작된 논술 파이널수업은 수시 논술전형 대비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수학과 탐구를 1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고 수시 논술전형으로 중앙대학교라는, 현역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파르타식 지도는 따라가기 정말 벅합니다. 집이 강남이었던 제게 노량진으로 아침 7시 50분까지 ‘지옥철’을 타고 등원해야 한다는 점은 잠이 많던 저에게 정말 큰 고난이었습니다. 때때로 감독선생님들의 엄격한 지도에 숨이 막히기도 했고, 의무자습 제도로 말의 자유조차 누릴 수 없다는 점 역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시작부터 흐트러지면 재수는 실패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한 결과 1년간 지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힘들 때마다 최대한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르며 열심히 공부하기로 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사귀 친구들과 맛있었던 급식은 삶에 촉촉한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학원의 시스템을 따르고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컨디션 관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새벽 2~3시까지 인강을 들으며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새벽까지 공부했다는 자부심에 뿌듯하고 자신이 자랑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공부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부족한 수면량은 학원에서의 생활을 방해합니다. 졸린 상태로 수업을 듣고, 자습해 봐야 남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체력이 고갈되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활력이 나지 않습니다. 이는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또 밤늦게까지 공부하게 되겠죠. 극단적인 상황 예시를 들었지만, 이처럼 잘못된 생활은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자기암시, 적절한 휴식 등을 통한 멘탈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일상에서의 사소한 즐거움(예를 들자면 급식 메뉴 선택이라든지)을 깨닫고 그것을 즐겨보시면 피곤함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성공한다! 등)를 가지는 것 또한 멘탈 케어에 좋습니다. 이러한 저의 재수 경험을 바탕으로, 재수를 결심하시는 여러분께 노량진 종로학원과 함께라면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내용과 질이 매우 좋은 수업과 학습지도, 클리닉 수업을 통해 부족했던 공부량, 올바르게 않았던 공부법을 교정하고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담임선생님의 진학지도를 통해 여러분의 목표를 확립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어시험, 플래너 의무 작성 등을 통해 항상 초심을 유지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수업과 특강 등 여러 특성화 수업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수시, 정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년을 방황했던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던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해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년에는 활기차고 즐겁게,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여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